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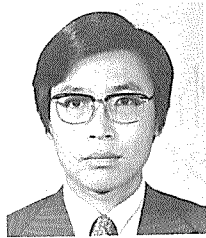
컴퓨터의 능력

中學2年生인 우리집 사내아이가 방학 막바지에 친구와 함께 아빠가 근무하는 회사에 왔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책상결에 놓인 터미널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동료직원이 엇그제 전국에 개통된 바있는 産業·技術 情報의 온라인 데이터뱅크와 네트워크에 관해 시범조작과 함께 상당히 매력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수천만의 産業·과학기술자료가 컴퓨터에 収録되어 있어 간단히 터미널의 키보드를 조작함으로써 필요한 情報를 전국어디서나 즉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이 완벽한 것으로 설명된 컴퓨터와 데이터뱅크는 두 中學生의 기초적인 질문에 의해 순식간에 그 제한된 능력과 기능의 실상이 애써 다시 설명될 수밖에 없었다. 세계 각 국의 文字를 수용할 수 있는가? 전세계의 정보를 모두 수록하자면 보조기억용량이 얼마나 되나? 아무 터미널이나 電話線에 연결하면 누구나 즉시 사용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이 던져졌다.

기껏해야 동네 전자오락게임의 프로세서나 알고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아이들의 기초지식은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더라도 電算機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상당한 수준임을 발견했다. 요즘 대부분의 매스컴과 광고매체에 거의 매일 새로운 情報器機들이 소개되고 이러한 기기

김규수
산업연구원 전산실장



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지금의 그 어떤 컴퓨터가 우리가 해야 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을 제한없이 할 수 있는가? 수용가능한 문자나 도형, 입출력수단, 처리속도, 異機種間의 연결, 정보전달을 위한 통신, 國漢文構文처리, 제어프로그램의 依存性, 應用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보수, 그리고 부단한 시스템의 보완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여건과 기술적 제약들 때문에 컴퓨터의 적용한계를 선명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엄청난 재화와 기술을 투입하고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진국의 시스템을 잠깐 둘러보고 온 고급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단기간내에 그와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시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와 유사한 사례가 없지 않다.

성장하는 젊은세대들의 電算機에 대한 이해는 직접 간접으로 접하게되는 퍼스컴과 교육을 통하여 상당한 수준에 있음을 전문분야의 電算人들은 알아야 하겠다. 萬能으로서의 컴퓨터나 결과적인 현상만을 설명하던 기존의 자세를 바꾸어 앞으로는 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보다 조리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